

한국대담회 40년 역사와 건설인의 역할



오두환
GS건설(주) 토목사업본부장

한국대담회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다목적댐이 완공된 지 47년이 지났으니, 한국대담회는 우리나라 댐의 역사와 불혹의 시간을 함께 하여온 것입니다. 마흔돌을 맞은 한국대담회에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도 긴 시간동안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길 기원합니다.

댐(DAM)은 홍수조절 및 하천 제내지 거주인구의 생활 영위와 안녕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댐이 하나 둘씩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댐에 관한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 기술교류를 위해 본 대담회도 창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수자원의 이수·치수 기능을 담당하는 댐의 역할이 나날이 커짐에 따라 본 회의 역할 또한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은 1,200mm 안팎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강우현황을 보면, 하루이틀 사이에 300~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도심지가 홍수의 역류로 생활기반이 마비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분명 오래전 계획설계된 도심지 수처리시스템의 용량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주요 도심지 내부를 흐르는 하천까지 범람하게 될 경우 문제는 일부 가옥이 물에 잠기고 도로위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의 세계기후변화로 인해 계획홍수빈도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지만, 이러한 때에도 하천은 항상 바다로 향하는 제 기능에 충실해야 하고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댐의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속속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4대강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아름답고 영속적인 제 모습을 갖추려면 물이 제 기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가뭄으로 4대강에 녹조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집중호우로 강이 범람치 않도록 하려면 시의적절하게 유량의 흐름이 조절되어야 하며, 이 유량의 흐름은 상류의 많은 댐들이 그 조절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중·소규모의 댐이 많이 건설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댐 기능의 또 다른 발전방향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세계기후는 점점 온난화되어 가고 자원 및 에너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댐이 가지는 방대한 담수 용량과 넓은 면적은 댐의 건설목적에 더 발전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담수된 물을 활용한 수력발전과 댐 배변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댐 본연의 목적은 물론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1. GS건설(주) 부항다목적댐 (공정율 : 82%)

우리나라 댐의 역사가 깊어지듯, 댐의 기술력 또한 성장하여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여러 중·후진국에 우리나라의 댐기술력을 펼칠 기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써 무한한 자부심과 그 추진방향에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의 세계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영향이 건설산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수자원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장(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이들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어 다가올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대담회 4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댐 건설의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물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물이 너무 많아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산발적인 물의 양을 관리하는 데는 댐이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댐의 역사, 그리고 이와 함께하는 한국대담회의 역사는 그동안의 4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